

14th Korea Chamber Opera Festival



제14회 한국소극장 오페라축제

초연오페라와 번안오페라의 초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3.22-4.15

3.22-25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칩과 그의 개 (한국초연) (Gian carlo Menotti : chip and His Dog)
		울 엄마 만세 (번안) (G. Donizetti : Le Convenienze e Inconvenienze Teatrali (Viva la Mamma))
3.29-4.1	세종오페라단	라이프라인 길월남의 사랑의 묘약 (번안) (G. Donizetti)
4.5-8	(공동제작) SCOT 오페라연구소 더뮤즈 환경오페라단 (사)라벨라 오페라단	말즈마우스의 모험 (한국초연) (A Muskrat Lullaby by Edward Barnes) 소프라노 000 구출작전 (한국초연) (Mystery on the Docks by Edward Barnes)
4.12-15	예술음악무대	5월의 왕 노바우 (번안) (Benjamin Britten - "Albert Herring")

※ 평일 · 토요일 오후 7시30분 · 일요일 오후4시

주최 | (사) 한국소극장오페라연합회

주관 | KCOG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세종오페라단 La bella opera 라벨라 오페라단 더뮤즈 SCOT오페라연구소 예술음악무대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 사무국 T.02-541-0720 F.02-541-0728 www.kcof.co.kr

입장권 | R 50,000원 · S 40,000원 · A 30,000원

코리아체임버오페라단 (www.kco1998.co.kr)

코리아체임버오페라단은 2003년, 예술감독 백의현 연출의 <노아의방주>를 시작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작품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선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청소년오페라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브리튼 청소년오페라축제>와 베르골레지 서거 200주년 기념<베르골레지 단막오페라축제>, 일본 동경실내극장과의 협력공연으로 소극장오페라발전의 일익(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창단 이후, 브리튼의 <굴뚝청소부 셋>(노아의방주)<한여름밤의 꿈>, 베르골레지의 <음악선생님>(영리한 사골체녀), 모차르트의 <카이로 의거위>, 도니젯티의 <비바 라 맘마>, 레하르의 <미소의나라>, 매네티의 <도와주세요, 글로벌링크스>를 한국초연, 50여회 공연하였으며 14회 소극장오페라축제에서는 아이를 위한 아이들이 연주하는 <칩과 그의 개, 알렉산더>를 초연 한다. 2012년, 코리아체임버오페라단은 융합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경기예술진흥원의 지부로 활동하며 향후, 10년을 준비한다.



예술감독 백의현 대표/지휘 이은순 연출 김문식 알렉산데 西岡 奈津子

칩과 그의 개 알렉산더! (Gian carlo Menotti : Chip and His Dog) (한국초연)

손님이 없는 허름한 악기 상점에 칩과 영리한 개, 그레고리 알렉산더가 구석에서 허기를 참고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찾아와 악기보다 영리한 개에 관심을 갖고 웃음을 잃어버린 숲의 여왕에게 데려가야 하니 개를 팔라고 한다. 사랑하는 알렉산더와의 아픈 이별보다 가난으로 병들어 죽어가게 될 알렉산더를 위하여, 칩과 알렉산더는 행복했던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굳은 약속을 남기고 떠나보낸다. 한편 숲속나라의 웃음을 잃어버린 심술꾼은 숲의 여왕에게 원예사, 곡예사 등이 찾아와 여왕을 즐겁게 하려 하지만 모두 감옥으로 끌려가고 마침내 알렉산더의 순서가 되는데...

여왕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명령에 복종하라며 알렉산더의 이름을 "피피"로 바꾸고 심술꾼은 요구를 하여 알렉산더는 결국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알렉산더에 대한 그리움으로 숲속을 지나던 칩이 소식을 듣고 ...



Chip 이해림 Chip 김수민 Chip 유지연 Chip's Dog 이수빈 Chip's Dog 유성아 A Royal Messenger 박우철 A Page 강봉석 A Page 손지환 The princess 마은비 The princess 심승미

음악코치 / 오지영 피아노 / 최영은, 유지현, 조가희, 원혜린 합창 / 오산청소년합창단

극장이야기 - 울 엄마 만세!

(G. Donizetti : Le Convenienze e Inconvenienze Teatrali (Viva la Mamma) (번안)

전라도 어느시골 극장의 연습실, 작곡가가 새 오페라 리허설을 시작한다. 프리마돈나(도도혜)가 그녀의 남편 프로콜로(나잘란), 루이지아(허영이), 중국테너(사천성), 무시코(고상희), 시인(극작가), 그리고 합창단원과 함께 입장 한다. 프리마돈나는 동료인 대본 작가와 작곡가 그리고 모두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며 폭력을 떨친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고조되며 허영이의 어머니 아가타(김권사님)가 허영이의 권리를 주장하며 등장한다. 그녀는 프리마돈나와 언쟁하며 허영이의 이름이 프리마돈나의 이름과 함께 극장 프로그램에 쓰여지길 원한다. 허영이는 프리마돈나가 오페라 가수가 되기 전 학교앞에서 붕어빵 장수였던 것을 조롱하며 허영이와 프리마돈나의 듀엣을 주장하지만 프리마돈나는 이를 경멸하며 반대한다. 단장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무대감독들을 부르고 모두는 무대 밖으로 끌려 나가는데.....



Corilla(도도혜) 박기영 Corilla(도도혜) 이지현 Corilla(도도혜) 신도란 Luigia(허영이) 임영신 Luigia(허영이) 한선희 Luigia(허영이) 김숙희



Musico(고상희) 김란희 Musico(고상희) 장은 Guglielmo(사천성) 김원동 Guglielmo(사천성) 박일권 Procolo(나잘란) 유태근 Procolo(나잘란) 계봉원 Procolo(나잘란) 이연 Agata(김권사님) 김지홍 Agata(김권사님) 최정훈 Agata(김권사님) 김재섭



Biscroma(극작가) 허철수 Biscroma(극작가) 이준봉 Prospero(극작가) 김병채 Prospero(극작가) 김학성 Impresario(단장) 박경태 Impresario(단장) 한진만 Direttore(무대감독) 박우철 Direttore(무대감독) 000